



KOKKOS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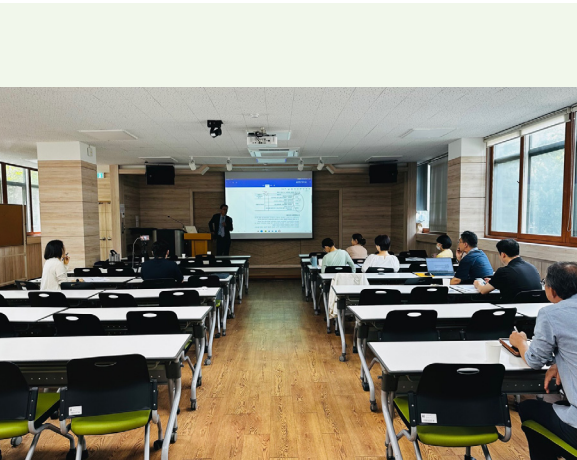
AUG 2023 VOL. 256

✪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 02-950-5401 • www.bible.ac.kr

교내 등산 동아리 'High High'팀이 7월 4일 마침내 일본 후지산(3776미터) 정상에 올라 크게 환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빚어낸 위대한 장관을 확인하며.. 왼쪽부터 나단(성서4), 심하원(영보2), 김다희(성서2), 장미경 선교사, 박태수 교수(성서). [관련기사 6면]

“보고서는 ... 방향이나 내용면에서 대학을 잘 설명하고 있다”

‘대학기관평가인증’ 대비 우리 대학 보고서, 외부 컨설팅 받아



▲ 브니엘홀에서 대학기관평가인증 대비를 위한 외부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

평가감사실(실장 임지영 교수)은 지난 7월 28일 그동안 준비한 평가인증보고서(대교협, 2023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받았다. 컨설팅은 배영길 대표(한국가치창조개발원)가 담당하였고 3세션으로 진행되었는데 각 세션별로 2시간 가까이 담당자의 발표, 배 대표의 질문과 지적이 날카롭게 오갔다.

배영길 대표는 “한국성서대학의 보고서는 평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방향과 내용면에서 대학을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한국성서대의 기본자세가 평가 점수에 매달리지 않고 대학의 실제적 실상과 노력을 그대로 보여 주려는 것으로 잘 표현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그러나 “어떤 항목에서는 본문 설명 글이 너무 길어 가독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미세한 지적부터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제1세션의 교원 및 직원 항목에서는 ‘교원 및 직원의 역량 개발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였으며 안전관리 체계 부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감염병 예방 및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체계도 추가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연구성과와 관련하여서도 주요 연구성과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부분의 추가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세션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항목이었는데 교육과정 체계 설명에서 대학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각각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교수·학습 지원 항목에서는 NSLB 교육지원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제3세션의 대학 이념 및 경영 항목에서는 주요 추진과제 실적에 대해서도 정량 지표 실적/정성(과제) 실적을 과제별로 기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의 대교협 제출 마감일은 9월 13일이며 현지방문 평가는 10월 18~19일에 있다. 인증 결과 발표는 12월 27일이다.

환경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 (창 2:15)

오늘날 현대인은 생태학적 위기 속에 살고 있다.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공기와 물, 그리고 땅이 오염되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인구의 95% 이상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와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사람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환경파괴로 인한 땅의 오염으로 생수를 사서 먹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생태계의 위기는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어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면서 초래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창

조세계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성경에서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독특한 위치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을 주셨다. 즉 사람은 자연에 대한 지배자나 정복자가 아니라 돌봄과 보살핌의 의무를 가진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자.

박태수 목사
(성서학과)



2023 년 「밀알 청소년 캠프」 4 년 만에 부활

전국 22 개 교회, 140 명의 청소년들 참가
31 일부터, 자원봉사자 76 명도 땀과 열정 쏟아



▲ 자원봉사자들이
현수막을 달고 있다.

2023 년 「밀알 청소년 캠프」가 코로나 4 년의 장벽을 깨고 7 월 31 일 ~8 월 2 일 까지 교내에서 교목실 주관으로 열린다. 전국 22 개 교회 청소년 140 명이 참석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마 22:36~40)을 주제로 말씀과 교제, 결단의 시간을 갖는다.

첫날은 교목실 김창현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둘째 날 의정부 물개로 불리는 윤현목 전도사가 자신의 변화된 삶을 주제로 젊은이들에게 착한 행실을 전하는 자녀로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일깨운다. 안소영 강사는 사이비 이단의 특징과 대처법을 알려주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로 올바른 말씀과 신앙인의 정의를 풀어간다. 성경 수업 G.B.S의 단계 학습도 유익한 공과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솔 교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도 갖는다. 말씀 시간, 미니 MBTI에서 서로에 대한 소개와 정보 공유 및 주일 학교 발전 방향 등을 나누게 된다.

이번 밀알캠프 진행을 돕기 위해 재학생 자원봉사자 76 명이 준비과정에서부터 쏟아낸 노력과 열정의 온기가 참석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2 학기 장학대상자 학부 484 명

3 억 1 천 6 백여만 원 지급



▲ 이주찬
(전체최우수성적장학)

장학위원회는 26 일 장학사정위원회를 열고 2023 학년도 2 학기 장학대상자 484 명을 선정하였다. 영예의 전체최우수성적장학은 이주찬 (컴소 3) 학우가 차지하였다. 장학금 총액은 3 억 1 천 6 백여만 원이다. 간호학과 3 학년은 실습을 마친 후 심사를 거쳐 선정 된다.

성적장학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체최우수성적장학 ▲이주찬 (컴소 3)

◆ 최우수성적장학

성서학과	▲김성국 (4) ▲권샘 (3) ▲김예성 (2) ▲김주빛 (1)
사회복지학과	▲강민주 (4) ▲우민영 (3) ▲권하진 (2) ▲유동일 (1)
영유아보육학과	▲지다은 (4) ▲장한솔 (3) ▲배서연 (2) ▲변해원 (1)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문상우 (4) ▲박범찬 (3) ▲안영준 (2) ▲박현진 (1)
간호학과	▲조유라 (4) ▲이윤경 (2) ▲최시영 (1)

◆ 우수성적장학 (2 등 /3 등)

성서학과	▲김진희 (4) ▲김유림 (4) ▲신송연 (3) ▲이소연 (3) ▲최재영 (2) ▲남궁이레 (2) ▲김경남 (1) ▲염도훈 (2)
사회복지학과	▲박재석 (4) ▲권예진 (4) ▲김현서 (3) ▲박지유 (3) ▲이태우 (2) ▲이서희 (2) ▲김시진 (1) ▲강성우 (1)
영유아보육학과	▲이민경 (4) ▲심채은 (4) ▲최수아 (3) ▲박세연 (3) ▲이유진 (2) ▲윤예진 (2)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문진우 (4) ▲이삭 (4) ▲김예나 (3) ▲이제희 (3) ▲김병윤 (2) ▲손소희 (2) ▲명민정 (1) ▲이도아 (1)
간호학과	▲류가환 (4) ▲이예슬 (4) ▲김태린 (2) ▲표서이 (2) ▲엄희지 (1) ▲하준우 (1)

학과가 이제는 입시전쟁의 전면에 나서

새 보직으로
학과별 입시 코디네이터 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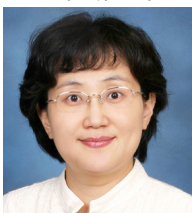
성서학과 이민규 교수
사회복지학과 배진형 교수
영유아보육학과 강정원 교수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정해덕 교수
간호학과 김주아 교수



▲ 이민규 교수



▲ 배진형 교수



▲ 강정원 교수



▲ 정해덕 교수



▲ 김주아 교수

우리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모집이 날로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입생 모집을 학과가 전면에서 나서도록 학과 개념을 혁신하고 학과 업무를 재조정하고 있다. 대학을 선택하는 지원자들은 한국성서대학이라는 이름보다는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의 명성, 특성, 성취도와 졸업 후 진로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추세이다. 따라서 각 학과 차원의 입시전략을 자율적으로 세우고 설득력 있게 학과를 홍보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입시업무를 맡을 새로운 보직으로 학과장 아래 학과별 입시 코디네이터 (이하 입시 코디) 제도를 도입하였다. 신임 입시 코디로 성서학과 이민규 교수, 사회복지학과 배진형 교수, 영유아보육학과 강정원 교수,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정해덕 교수, 간호학과 김주아 교수를 7월 7일자로 임명 하였다.

신임 입시 코디들은 지난 7월 13일 복음관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학과 입시 코디네이트의 역할에 대해 강규성 부총장의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입시에 대한 입시 코디네이터들의 의견도 모았다. 우선 첫 시작으로 8월 10일 점심고시 교사장에서 입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각 학과의 입시업무는 각 학과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학과는 학과장이 중심이 되어 합리적인 목표 (지원자 수, 입시경쟁률) 를 설정하고 효과적이고 매력 있는 입시전략을 수립하고 소속 교수에게 업무를 부여한다. 학과 입시 코디는 이 과정에서 총무의 역할을 감당한다. 입시, 학업지속지원본부는 그동안 해 왔던 입시 업무는 그대로 수행할 뿐 아니라 각 학과 입시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과 입시업무는 학과장을 비롯한 학과의 전 교수와 소속 학우들까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 할 것이 요구된다.

신임 입시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성서학과 | 이민규 교수 | ▲ 사회복지학과 | 배진형 교수 |
| ▲ 영유아보육학과 | 강정원 교수 |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정해덕 교수 |
| ▲ 간호학과 | 김주아 교수 | | |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20~22 일까지

코엑스
우리 홍보 부스에 450명 상담



▲ 지원자와 학부모를 상대로 일대일 입시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2024 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7월 20~22일까지 3일간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4년제 146개 대학이 홍보 부스를 마련하였으며 서울권에서는 34개 대학이 참여했다.

우리 대학은 입학관리팀 신지수 팀장을 중심으로 사흘간 24명이 450여명과 일대일 상담을 가졌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근로학생 (3명) 과 조교 (4명) 가 현장에서 지원자에게 맞춤 상담을 제공하며 변화를 꾀하였다. 학교 재학생 신분이어서 상호 접근성과 정보전달에 있어 현실 공감력을 높이며 지원자로부터 흡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신 팀장은 "입시설명회에서 우리 대학 지원을 굳히고 이를 현장 확인 차원에서 방문한 지원자가 상당수였다" 라고 밝혔다. 상담자들은 자신의 지원 학과의 취업률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장학금 제공 조건, 기숙사 입주 및 신앙훈련의 내용 등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린 박람회라 지난해보다 열기가 훨씬 뜨거웠으며 소신 지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 밝혔다.

2024년도 수시 입시 원서 접수일은 오는 9월 11~15일까지이며 선발인원은 205명이다.

학교 설립자「一粒(일립) 강태국 박사 25 주기 추모예배」

온공현 목사 설교
"청출어람(靑出於藍)의 의지를 펼쳐야"



▲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온공현 목사

우리 대학 설립자「一粒(일립) 강태국 박사 25 주기 추모예배」가 25 일 오전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거행되었다. 온공현 목사(38 회, 아프리카 수단 선교사)가 '왕의 세계 선교'(마 28:18~20)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만왕의 왕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 설립자는 선교사의 삶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이므로 따르고 있는 우리도 당연히 선교사이여야 한다. 설립자는 '천국운동 50 년 계획'을 통해 수많은 결실을 이루었으며 나무와 사람, 복음을 심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공간에 있는 것이다. 이제 제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넘어서기 위해 청출어람(靑出於藍)의 의지를 펼쳐야 한다. 바로 세계선교 50 년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강우정 총장은 "한국성서대학의 고난의 역사는 축복이었으며 고난의 상징인 설립자를 가진 것도 큰 축복이다. 설립자는 「나의 증언」에서 '은총의 시련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시련이 은총이라는 역설을 이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대학원장이 역사의 질곡 속에 오직 민족복음화의 한 길을 향해 헌신과 사랑을 실천한 설립자를 따라 땅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는 성서인이 되자고 기도하였고 이병철(37 회, 주향교회 담임, 법인이사)가 축도해 주었다.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사업 수주

평생교육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MOU 체결키로

평생교육원(원장 김승옥 교수)은 지난 7 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발주한 「2023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사업」을 수주하였다. 사업비는 1 천만 원.

이 사업은 아동학대 위험 영유아와 경계선 영유아에 대한 발달 모니터링, 관련된 부모, 교사 대상 발달 자문, 전문가 - 부모 - 교사간 발달피드백을 통한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그 외에도 장애 영유아, 경계선 영유아에 대한 발달상황 현장방문 코칭, 아동학대 위험 영유아 대상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가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어르신 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영유아 보육 서비스 등을 펼치고 있다.

우리대학 평생교육원은 서비스원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8 월 4 일 MOU 를 체결할 계획이다.

제 3 차 법인 이사회

김승옥 교수(영유아보육학과)
신임 교원 임용



▲ 김승옥 교수

2023 년도 제 3 차 법인이사회가 25 일 밀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사회에서는 김승옥 교수를 영유아보육학과 교원으로 임용을 결정하였다. 김 교수는 광주대 유아교육, 덕성여자대 대학원에서 유아교육학 전공으로 교육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성대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2023 년 하계 KBU 임팩트 학생봉사단 필리핀에서 사랑과 봉사를 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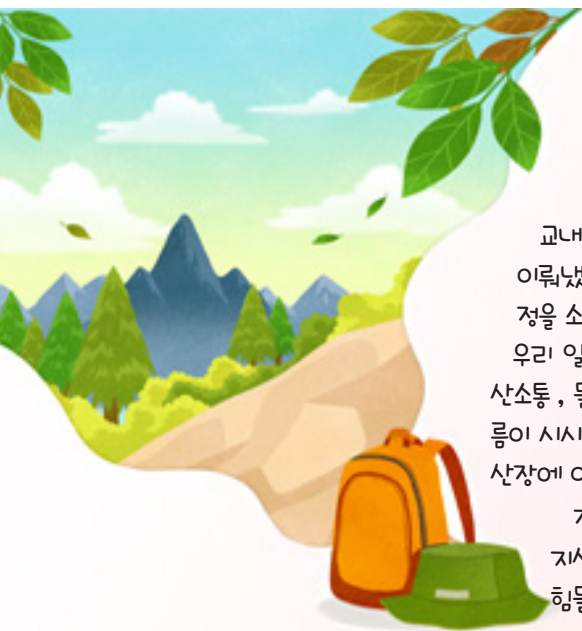
▲ 학우들이 팔라시파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친 후 함께 하였다.

KBU 임팩트 학생봉사단은 필리핀 아동·청소년에게 한글과 태권도 교육봉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다 (17~21일까지).

필리핀의 습하고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며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앓고 1 일 차는 앙헬레스 바랑가이 리잘 교회에서 청소년 60 명에게 피딩사역 및 한국어 교육봉사로 사랑을 나누었다. 2~4 일 차에는 루손섬 최북단인 일로코스 수르 지역 3 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160 명을 대상으로 봉사하였다. 초등학교에 도착하니 먼저 달려와 방문에 감사하다며 고사리손으로 과일과 삶은 옥수수, 선물 보따리를 듬뿍 내민다. 몽클했다. 한국어 교육, 햄버거와 학용품을 나누어 주었고 레크레이션으로 교감을 가졌다. 이곳은 1 년에 햄버거 1 개 먹기 어려운 환경, 선물을 받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풍요를 실감해 본다.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마치고 차량 출발 후에도 헤어짐이 아쉬워 뛰며 따라왔다. 우리 봉사단원들은 뒤를 돌아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들 미래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였다. 봉사단은 성서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이 더해져 감동적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이번 필리핀 해외봉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사업비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인솔자 ▲김미숙 연구원 (지역사회임팩트센터)

단 원 ▲오동영 (리더, 사복 4) ▲김수아 (성서 4) ▲이제우 (사복 4)
▲임재희 (사복 4) ▲장혜원 (간호 1) ▲전소현 (간호 1)



일본 후지산 등반기 나단 (성서 4)

교내 등산동아리 'High High' _ 일본 후지산 (3,776m) 정상에 오른다

교내 등산동아리 'High High' 가 이번 여름방학 기간 (3~6 일) 에 일본 후지산 (3,776m) 등정을 이뤄냈다. 연초 2 월 박태수 교수님의 제안에 따라 원정대가 결성, 체력강화와 등산으로 준비 과정을 소화한 후 3 일 인천을 출발했다.

우리 일행은 도쿄에 도착 이튿날 요시다 루트 5 합목에서 (2,305m) 8 합목 (3,100m) 으로 향했다. 산소통, 물, 간식, 작은 기상 변화에 맞춰 파카와 우비로 단단히 무장하고 발길을 뚫었다. 햇볕과 구름이 시시각각 장관을 연출하다가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는 등의 변화무쌍한 날씨를 실감하며 밤늦게 산장에 여장을 풀었다.

정상에서 새벽 일출을 보려면 새벽 1 시에 출발해야 한다. 남은 거리는 600 여 미터지만 후지산은 정상 길을 쉽사리 허락해 주지 않았다. 2,400 미터 지점부터 고산병 증상으로 대원들은 힘들어 하기 시작하였다. 부족한 산소로 탈수, 식욕부진, 몽롱한 두통과 어지러움에 발을 내딛기가 무척 힘들었다. 휴식과 산행의 끝없는 반복, 겨우 겨우 내뿜는 호흡을 달래며 올라 가다 보니

해돋이는 보지 못하고 마침내 아침 8 시에 정상에 올랐다. 정상 분화구와 주변 풍경은 광활하면서 장엄했고 구름과 조화된 장관한 파노라마를 등정의 선물이라며 내놓는다.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졌다. 하나님이 빚어낸 위대한 장관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고산병의 아픔을 딛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성서대학 속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

등반에 참여한 일행은 박태수 교수, 나단 (리더, 성서 4), 김다희 (성서 2), 심하원 (영보 2), 장미경 선교사 (성서 신대원 출신) 총 5 명이다.

* 합목 : 후지산 높이를 맨 아래서부터 정상까지 10 등분하여 각 등분을 합목으로 칭한다.



▲ 후지산 정상 (왼쪽부터 나단, 장미경 선교사, 김다희, 심하원, 박태수 교수)

대학혁신지원사업 1 차년도 연차평가보고서 제출

자율성과지표 달성율 98.6%~109.8%,
성공적 수행



한국성서대학 혁신사업단 (단장 강규성 부총장) 은 지난 7 월 3 일 "2023 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1 차년도 연차평가보고서" 를 교육부 (주무부서 한 국연구재단) 에 제출하였다 . 연차평가보고서에서 우리대학은 혁신사업의 목 표로 「밀알인재양성 교육모델 고도화」 를 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혁신」 을 비롯한 3 대 추진전략과 「역량기반 일립교양교육 고도화」 를 포함 한 9 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보고서에서 우리 대학이 말하는 「교육혁신」 은 신앙과 학문 및 삶이 일치 하는 인재를 기르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실 천교과목을 개편 운영하여 공동체 인성교육에 성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 전공 교육도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교수와 학생 , 학생 과 학생이 이루어 가는 공동체적 가치실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 특히 학생 - 교수 공동프로젝트 , 나노디그리 교육과정 개발 운영이 성과 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우리대학은 모든 학생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공으로 끌고 가겠다는 NSLB(No Student Left Behind) 의 진로교육체계 를 혁신적으로 이루어 가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

1 차년도 자율성과지표 달성율은 교육혁신지수 98.6%, NSLB 비교과혁신 지수 101.8%, 사회가치실현지수 109.8% 에 달하고 있어 혁신사업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표 1 참조) 이를 위해 쓴 돈은 약 16 억이다 . 2023 년도 정부재정지원은 당초 16 억 4 천 6 백만 원이었는데 그 후 약 2 억을 추가로 지원받은 상태이다 .

이 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는 8 월 중순 발표 될 예정이다 .

보고서 집필진은 다음과 같다

총 괄 ▲강규성 부총장

교육혁신 추진성과 및 계획

▲최은희 학사부총장 ▲권경만 전략기획실장

▲이성아 NSLB 교육지원단장 ▲윤혜진 교수학습센터장

▲유미나 교학팀장

자체성과관리 ▲김희수 성과관리실장 ▲권경만 ▲장성희 성과관리실팀장

집필 간사 ▲지수빈 전략기획실

자율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 목표 총괄표

지표명	단위	기준값(A) ('22.2.)	1차년도 달성도	
			실적값(C)	달성도(C/B, %)
① 교육혁신지수	점	95.6	95.7	98.6
② NSLB 비교과혁신지수	점	86.4	92.3	101.8
③ 사회가치실현지수	점	70.5	86.7	109.8
평균 달성도				103.4

교육환경시설개선 활발히 이루어져

로고스홀 모니터 설치 및 데크목 교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방학 기간에 진행하는 교육환경시설개선작업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현재 (7월 31일) 까지 완료된 사업은 로고스홀 대형 모니터 설치 및 교체, 카페테리아 테라스와 복음관 뒷편 성은동산 데크목 라운지 1면 교체 및 복음관 옥상 하늘정원 파고라 라운지 데크 목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로고스홀 객석 위 모니터 설치 및 교체

로고스홀 중간 객석 좌우 상단에 신형 모니터 (86인치) 2대를 새롭게 설치했다. 설치하기 전에는 전면 무대 상단 좌우측 모니터만 가동됐다. 그러다보니 로고스홀 중간과 뒤편 객석에서는 시야가 멀어 영상 확인에 불편함이 컸는데 이 문제가 해소되었다. 전면 모니터는 수리를 통해 상하 구동이 가능하도록 부품도 교체하였다. 이밖에 8월 중순경 로고스홀 조명 교체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넓은 데크목 교체

카페 코스테스의 야외 테라스의 넓은 데크목이 교체됐다. 밀알관 입구 좌측에서 승강기로 이어지는 경사로와 주변의 철제 난간까지도 두텁고 견고한 재질로 보강시켰다.

이와 함께 성은동산에 있는 1면의 데크와 복음관 옥상 파고라 아래 설치된 데크의 썩은 데크목을 모두 걷어내고 좀더 두터운 데크목으로 교체하였다. 또한 밀알관 옥상과 연결되는 부위까지 깔끔하게 정비되었다.

이번 복음관 옥상과 성은동산 데크목 교체는 박태수 (성서) 교수와 온공현 목사 (38회, 아프리카 수단 선교사)가 공동 작업으로 완결되었다. 두 사람 모두 재학시절 학교에서 근로장학생 (일명 짬생)으로 이름을 날린 베테랑들, 폭염에 땀으로 온 몸이 젖는 여건에서도 임무를 끝낼때까지 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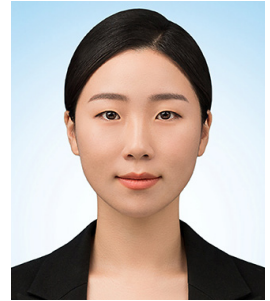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배영길 대표와의 대화

대교협이 대학기관인증평가가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의 첫 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대학 평가감사실은 년초부터 이를 위해 준비를 해왔는데 보고서의 열개가 대충 완성된 이 시점에서 외부인사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14년 동안 평가 때마다 우리 대학을 도와온 배영길 대표에게 컨설팅을 부탁하였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6시 컨설팅을 마치고 총장실에 들른 그와 일문일답을 나누었습니다.

- Q.** 우리 대학이 이번 평가에서 '인증'을 받겠습니까?
- A.** 배영길 대표 - (질문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론이지요. 성서대학은 당연히 '인증' 받습니다.
- Q.** 그런 자신감의 근거는?
- A.** 기준에 미달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 Q.** 보고서에 추가하거나 보충해야 할 부족한 점은 없었나요?
- A.** 물론 있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낮에 컨설팅하면서 각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논리 전개상의 순서 조정, 증빙 자료 또는 도표의 추가 등 디테일한 것들입니다.
- Q.** 여러 대학의 평가 준비를 자문하시는데 우리대학과 다른대학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A.** 첫째는 성서대는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담당 교·직원들의 탁월한 전문성과 안정감입니다. 한 마디로 성서대 사람들은 평가를 받을 줄 아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하나됨'은 성서대의 큰 장점입니다. 여러 대학을 다니며 가장 힘든 점은 구성원 간의 뿌리 깊은 반목, 불협화음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컨설팅을 하러 온 건지 눈치 보며 타협점을 찾다 온 건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 Q.** 교육부의 정책이 간혹 우리대학의 목표와 맞지 않고 또 소규모대학이라는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사업 연차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에서 전공·학과 등 구분 없이 모집을 권장하는 것 같은 예입니다.
- A.** 교육부가 방향을 제시할 때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제시' 혹은 '예시'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학교의 목표와 형편에 맞지 않으면 이를 설명하고 학교 형편에 맞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교육부가 권유'라고 하면서도 명령보다 더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지만 학교가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배영길 대표는 한국생산성본부 (KPC) 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가치창조개발원**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 컬럼
배민정 직원(입학관리팀)

당연함의 간과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나름 순간의 기록이라는 타이틀로 가까운 일상에서 좋은 피사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 찍고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필름을 사용해 찍던 카메라나 DSLR 카메라는 먼지만 잔뜩 낀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최근 마이아트뮤지엄에서 진행된 'Franco Fontana 사진전'을 다녀왔다. 컬러 사진의 선구자인 그는 1933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1961년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의 작품을 처음 봤을 때는 "뭐야 이런 거라면 나도 찍겠어!" 싶었는데, 그의 일대기를 읽고 찬찬히 작품을 살펴보니 내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한 것이 있었다.

지금이야 자기가 찍고 싶은 대상과 사물을 향해 핸드폰 카메라 셔터를 살짝 터치하기만 하면 "찰칵"하고 1초도 안 돼 피사체를 담아낼 수 있다. 그러나 Franco Fontana가 활동하던 초창기로 돌아가면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당시 저 작품 하나를 찍으려고 구도, 색감, 빛이 지나가는 그림자를 조정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대까지 ... 그러한 과정을 거쳐 포착된 찰나의 단 한 순간을 확인하고서 마침내 셔터, 차 - 알 - 각.

맞다. 당시 흑백 사진이 주를 이루던 초창기에 그는 한 폭의 회화 작품을 연상시켜 줄 컬러 사진의 개척자요, 선구자의 길을 열었다. 그가 말했다. "풍경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풍경이 되어야 하고 풍경은 당신이 되어야 한다."

긴 시간과 애정 없이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작품이라는 걸 'Franco Fontana 사진전'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는다.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도전이었음을!



교수 컬럼
유정선 교수(성서학)

새벽에 마주한 하나님의 사랑

매미 소리에 눈을 뜨니 새벽 4시다. 올 초 시작한 성경 읽기는 이제야 시편에 들어섰고 이 새벽에 나는 27 편을 마주하고 앉는다.

"여호와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야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시 27:1~5)

지난 날 뜨거운 눈물 속에서 피어오른 이 말씀은 그날 이후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되는 말씀이었고 순간순간 나를 붙잡아 주는 말씀이었다.

특히 인생 2 막에 부족하게 시작하였지만 머지않아 이 교정을 떠나야 하는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이 말씀은 그야말로 나의 빛이고 구원이었다. 낮가림 심하던 나는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지낼 수 있었다. 때로는 눈물을 삼키기도 하였다. 때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꼭꼭 누르기도 했다.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를 구하며 지내온 시간은 그야말로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퇴직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는 이 새벽에 마주한 시편 27 편은 그 어느 때보다 가슴 설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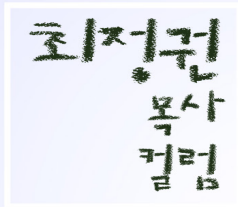
학생 컬럼
성민창(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3)

습관적으로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을 읽은 적이 있다. 내용은 잊었지만 습관의 위력이 의지나 욕구보다도 앞선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다. 그 뒤로 삶의 작은 영역을 습관화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가령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고 성경을 10분 읽는다거나, 잠자기 전 10분 정도 기도하기, 매주 정해진 요일 운동하기 등 크게 번거롭거나 힘들지 않게 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꾸준히 해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다. 습관의 위대한 점은 한 번 습관이 되면 의지적 노력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작점과 끝점 외에 중간 과정은 의식하지 않는다. 그만큼 피로감을 덜 느끼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듯 삶에서 습관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개인 역량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다만 습관으로는 창의적 활동을 하지 못한다. 창작은 반복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습관에 얽매어서는 한계가 명확한 사람이 될 뿐이다. 뇌는 습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중독된 것으로부터 평생에 걸쳐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다만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 습관을 다른 습관으로 덮어버릴 수는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내가 이토록 중독을 경계하는 것은 성경에서 허용하는 중독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의존적인 것들을 우상으로 치부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깊이 침투한 게임, 니코틴, 알코올, 포르노, 카페인 중독 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무렇지 않게 우리 삶에 스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요소이다.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었다. 더 정결할수록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부정할수록 장막 밖으로까지 쫓겨났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예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스스로도 더 정결해져야만 한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거룩에 관한 하나의 원리이다.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아피아 길 위에서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 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로마로 대변되는 이태리는 성경 역사와 교회사 이해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자원입니다. 사도행전을 강해하며 개인적으로 책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첫째는 행 28:13~15 입니다.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머무느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

둘째는 행 28:30.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살았다는 셋집은 어떤 형태였을까? 당시 서민 아파트였던 인솔라 (Insula) 의 일부였는지와 로마에 주택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셋째는 행 24:24 에 벨릭스 총독과 두르실라 부부의 운명이었습니다.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 바울을 마지막으로 심문했던 로마 총독 벨릭스와 그의 유대 아내 두르실라는 복음을 듣고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벨릭스는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했고 결국 복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당시의 로마의 휴양지였던 폼페이에서 거주하다가 화산재에 묻히고 맙니다.

로마 방문은 이런 질문의 답을 찾게 되고, 바울이 걸었던 아피아 길에서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바위를 깔아 만든 폭 4 미터에 마차 2 대가 교차할 수 있고 양옆에 흙으로 만든 인도가 있었습니다. 인도 옆에는 죽은 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은 재정 능력에 따라 규모가 정해졌는데 큰 무덤은 작은 성체같이 지어졌고 대부분은 파괴된 상태로 남겨 있었습니다. 무덤이 생긴 이유는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들었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 당시 집정관인 아피우스 클라우두스가 무덤을 만들었고, 그 후에 부유한 로마인들이 길 따라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무덤 중에는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의 무덤도 있었다. 아피아 길 위에 떠 있는 한 낮의 태양은 머리카락을 태울 만큼 작렬하게 내리쬘었습니다. 그 길에 서서 여자의 몸으로 로마서를 들고 갔을 뱌뱌 집사님, 로마 군사들 틈에서 로마로 입성하게 될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길 위에서 바울의 발걸음을 기다렸을 로마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8 월 박인걸

온종일 햇볕의 작열(灼熱)에
지상은 속수무책이다.
태양의 이글거림은
분노를 넘어 폭발이다.

그늘도 화덕이고
회전날개바람도 지켰다.
실내에 흐르는 에어컨 바람이
그나마 위로를 준다.

그럼에도 초록 숲과
넓은 들판은 행복에 겹다.
쏟아지는 열기에 몸을 흔들며
품은 씨방을 살찌운다.

곤충들은 짝을 찾고
풀벌레는 산란에 바쁘다.
절정에 이른 생명체의 신비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밀회한다.

팔월은 뜨거워야 하리
더 뜨거워야 하리
태양이 더 가까이 다가와야
익을 것들이 익어간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09



<https://v.daum.net/v/20181028164102632>

속수무책 도가니 열탕에서 바람 자락을 찾는다. 회전날개 바람도 에어컨 바람도 지친 한낮, 그 무더위에도 매미는 부지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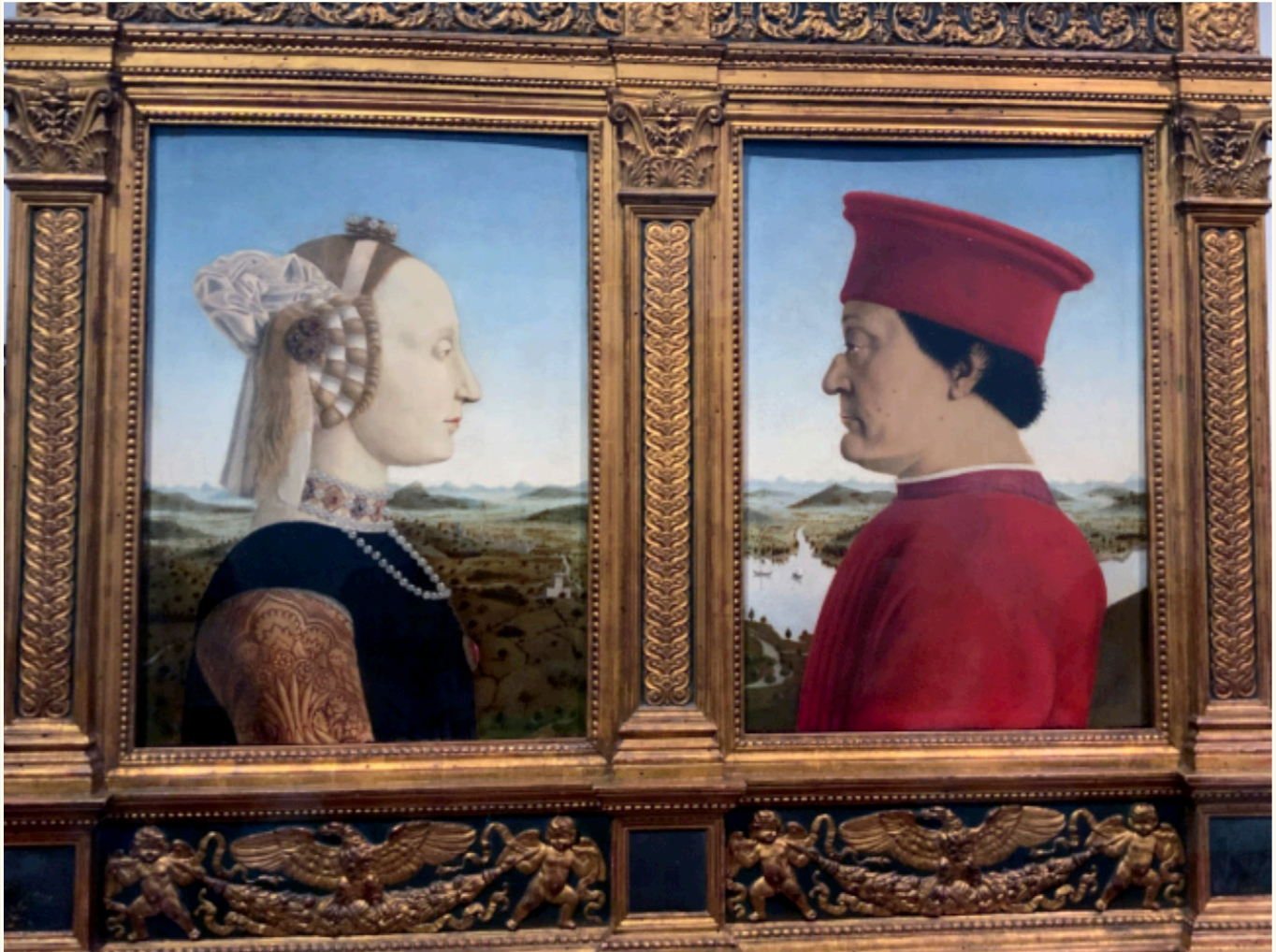
여름이 뜨겁게 이글거린다. 다가올 가을이 헛헛하지 않도록 몸을 흔들며 씨방을 살찌운다. 푸른 생명이 화덕 같은 열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마침내 결실을 꿈꾸는 시절!

여름 끝자락은 가을 첫 자락에 닿아있다.

아내 사랑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Piero Della Francesca 1416? -1492)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35호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 공작과 바티스타 스포르차 공작부인 (Federico da Mantefeltro and Battista Sforza, Duke and Ducherss of Urbino) 1472-1475

오늘은 이탈리아 미술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그린 프란체스카는 피렌체 남쪽인 우르비노 (Urbino) 에서 활동하였는데 그는 미술뿐 아니라 뛰어난 수학자여서 그림에 수학적 개념을 집어넣은 화가로 유명합니다. 15 세 때 피렌체에서 스승 레온 바티스타와 만나고 난 이후 이탈리아 미술의 선구적 역할을 한 화가로 평가받습니다. 원근법을 적용한 빛과 색채 삽입을 통해 공간적인 효과를 크게 창출해 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가 그린 공작 부부의 그림보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 꾸는 묘사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꿈」 이 더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성당 벽화에 그려져 있다는 그 그림을 못 보았으니 이 그림으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피렌체 우피치미술관에서 공작 부부의 그림을 만났습니다. 그림책에서 처음 봤을 때 인상적인 건 페데리코 공작의 코입니다. 유난히 코가 띄는데 가이드에게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시대 가장 성공한 용병대장 출신으로 우르비노 군주가 되어 인문학과 철학과 화가들을 지원하면서 우르비노를 학문의 중심지로 만든 인물입니다. 이 그림은 딸만 8 명을 (6 명이라고도 함) 낳고 드디어 고대하던 아들을 출산하였지만 애석하게도 삼 개월 만에 죽은 아내를 기억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아내 모습이 창백한 이유는 사망한 후 그녀 얼굴을 석고상으로 만든 걸 보고 그렸기 때문입니다. 공작도 부상으로 오른쪽 얼굴이 상하고 시력마저 상실하게 되는데 그걸 가리느

라 왼쪽 중심으로 그린 겁니다. 콧대가 상하면서 하나 남은 눈의 시선을 가리게 되자 그걸 외과적 수술로 높아진 콧대를 잘라 낸 것입니다. 그림 뒤의 풍경은 그가 군주로 다스리던 우르비노의 대지이며 프란체스카가 원근법으로 그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뒤에는 부인과 자신이 함께 마차를 타고 서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무려 24 살 어린 아내를 잃고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그림을 양쪽으로 접어 어디든지 가지고 다녔을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문득 함께 그림을 보고 있는 아내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대학어린이집



▲ 풋살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즐거운 여름, 신나는 물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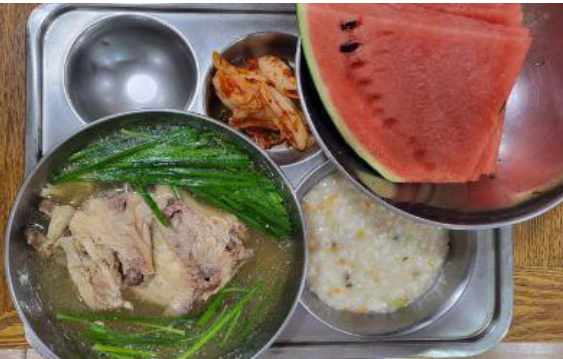
지난 6 일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대학 풋살장에서 여름 물놀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풀장과 비눗방울, 물총 등 다양한 물놀이 기구와 용품으로 신나게 놀이를 즐겼다.

물놀이 시작하기 전 각반은 물놀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물놀이를 진행할 때에 나누었던 준비운동도 마치고 참여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같은 안전수칙경험을 통해 영유아들은 여름을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마스크 없이 진행된 물놀이 행사로 교사들과 영유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맞출 수 있었다.

우리 어린이집은 앞으로도 영유아들이 계절에 적합한 활동을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이다.

[믿음반 교사 문채림]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대접한 삼계탕과 수박

초복 맞이 수박 후원

초복인 지난 11 일, 박성대 후원자 (상도전기통신 대표) 가 수박 15 개를 복지관에 후원해 주었다. 수박을 전하며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에게 수박이 시원한 기운을 내게 하면 좋겠다" 고 말하였다. 그는 2002 년부터 명절과 초복 등 절기마다 제철 과일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오동준 관장은 "초복을 맞아 시원하고 든든한 한 끼를 선물해 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우리 월계복지관은 지역주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로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고마움을 전했다. 수박은 경로식당 이용자 및 식사 배달 등을 포함해 325 명의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온정을 담아 전하였다.

[지역사회조직팀 이동재 사회복지사]

곰빛어린이집



▲ 유아들이 다이음사업에서 제공된 일본의 의복인 기모노를 입었다.

다이음사업

곰빛어린이집은 지난 6 일과 12 일, 결혼이민자가 찾아와 안내해주는 다이음사업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인 일본 (1 회기) 과 중국 (2 회기) 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순서로 이어졌다.

유아들은 일본과 중국의 고유 전통의상을 직접 착용하였고 방문한 선생님에게 관심을 보이며 교육에 임하였다. 전통의상, 국기, 상징 동물, 고유 풍습 등을 배우며 문화적 차이를 접했다. 궁금한 점 등은 직접 질문하였고 해당 국가의 언어로 노래까지 불러보았다. 일본,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은 자국 문화를 이해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나누는 폭넓은 사고가 형성되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것이다. [목련반 특수교사 장윤정]

성서대학교회



▲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진행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 참여한 학생들

풍성한 교회학교

7 월을 교회학교 여름행사로 진행하였다. 13 일 ~15 일까지 '기독교 세계관' 을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 22~23 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배' 를 주제로 미취학부 여름성경학교를 가졌다. 미취학부는 주변의 전도 대상자까지 초청해서 부모와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은혜로움을 경험케 해 주었다.

청소년부는 22~23 일까지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가졌다. 주제는 '엠티드림 (UP-DREAM)' 이었고 하나님 앞에 엠티드려 겸손히 예배하며 비전을 간구하는 시간이 됐다. 초등부는 29~30 일 '말씀 듣고 오신 예수님' 을 설정,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줄 상큼하고 신명난 물놀이와 말씀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였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가 이어지길 소망한다. [김문웅 목사]

상계백병원어린이집



▲ 도봉구민회관에서 진행된 거대한 버블쇼의 한 장면

도봉구민회관 버블쇼

지난 14 일 상계백병원어린이집에서는 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버블쇼를 관람하였다. 평소 비눗방울 놀이를 즐겨하던 아이들은 다양한 비눗방울을 이용한 놀이 공연이라는 점에 관심이 쏠렸다. 비눗방울 제작 과정, 큰 방울 안에 작은 방울이 생성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보았고, 진행자가 객석을 돌며 만들어 준 비눗방울을 직접 터트릴 때는 환호성을 질렀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가 커다란 비눗방울 안에 들어가 보는 이색 체험과 선물을 받는 등 유쾌하고 즐거운 공연이 됐다.

이 과정에서 버블쇼의 후속 놀이인 목욕 놀이까지 참여하면서 풍성한 놀이 경험을 새겼다. 이번 공연은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과 학생들과 사제동행 프로그램의 도움이 더해져 가능할 수 있었다.

[맑은반 교사 윤서희]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 찾아가는 그림자 놀이에서 소개된 프로그램을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

찾아가는 그림자 놀이 프로그램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그림자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영아반에게 '아기 돼지 삼형제' 유아반은 '잠깐' 또는 '배고픈 거미'를 주제로 멋진 공연이 펼쳐지게 된다. 공연이 끝난 이후에는 영유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색깔 그림자 만들기, 손 그림자 만들기, 크고 작은 그림자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확장 활동이 더해져 운영된다.

무더운 여름철에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원내에서 새로운 문화 체험과 확장 교육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며 많은 어린이집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찾아가는 그림자놀이' 프로그램은 관내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10 월까지 진행된다. [보육전문요원 김민정]

상계 5 동어린이집



▲ 학부모들이 '엄마의 행복 연습'에 참여해 상담하고 있다.

부모교육 집단상담 '엄마의 행복 연습'

지난 5 일 월계사회복지관과 연계, 전문 상담사가 참여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주제는 '엄마의 행복 연습'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다. '나를 소개하기, 나의 감정 찾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순서로 미술도구 등을 이용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양육'이라는 공감대로 마음 속에 있던 고민을 토로해 보니 이야기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어려움도 알았고 양육 스트레스 해결 방법까지 모색하게 됐다.

어머니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으로 인해 생긴 내적 갈등과 마음의 상처까지 많이 위로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록풀잎반 교사 강혜진]

늘사랑어린이집



▲ 늘사랑 워터파크에 참여한 학부모와 유아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늘사랑 워터파크

무더위가 지속되는 지난 21 일, 어린이집 옆 테니스장에서 0 세 ~3 세를 대상으로 물놀이를 가졌다. '늘사랑 워터파크'를 주제로 가정에 미리 행사 안내문을 보냈고 영유아에게는 물과 물놀이와 관련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행사 당일 테니스장에 설치된 물놀이용품과 산뜻한 풀장을 보며 환호성과 반가움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적극성을 드러냈다. 물놀이가 시작되자 영유아 모두 웃음과 함성이 내내 끊이질 않을 만큼 물놀이를 만끽하고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 준비 과정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기억되도록 다양한 놀잇감과 신형 튜브 등을 추가로 배치한 게 주요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열린어린이집에도 많은 호응이 이어졌다.

[늘사랑반 교사 김세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3년 6월 21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교회(최정권)	1,728만원(운영)	강우정.강 진	186만원(운영)
경성교회(박종걸)	320만원(장학)	교수부(교수상조회)	100만원(장학)
강혜정	251만원(운영)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부설기관	일 반
1구좌 강나경 고대운 권명순 권희조	2구좌 김성훈 탁영화	1구좌 김효진 최영운	1구좌 안종민
김도훈 김은혜 김태용 김현정	3구좌 고은영 민찬양 이영삼 정슬기	3구좌 김미화	1구좌 김양권 조연상
박영우 박종주 배창경 송민규	재학생 및 가족	동광교회	3구좌 장문석
오찬양 이영식 이은광 이정호	1구좌 김혜미 황미숙	1구좌 배 윤.김현진	단체 및 기관
임삼일 임은성 전순실 정다연	교직원 및 가족	삼일성서교회	10구좌 철원제일교회
정다운 정지현 한경순 홍금주	1구좌 광경미 박연지 전광선	1구좌 김초롱	25.6구좌 경성교회
설에스더	10구좌 김현광 박태수 안창선 이민규	평화교회	
	장성희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만5천원	2만원	3만원
5천원 김셋별	순옥순 손주현 손진규 송바울	최인호 최종운 최진희 최현정	고난홍 구본길 구연민 국소영	박문용 반세호 배예진 서성숙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송성은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최해림 탁국현 탁옥석 하수현	김득희 김동원 김미나 김미향	설보경 성인선 손승현 양연선
강애술 강옥경 강은혜 강정민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김민지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우종엽 윤문순 이길순 이남희
강정희 강주옥 강춘자 고대운	신영옥 신은혜 신종수 신지은	한해우 허영숙 홍금주 홍선호	김연주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영삼
고성호 광미화 구세경 구진경	신혜영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홍성대 홍정심 황승호 황예린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이영섭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권명순 권순길 권순실 권순웅	안현정 양은숙 양혜영 엄미자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김정복 김종재 김지원 김현진	임연식 장영호 전지혜 정슬기
권슬기 권유철 권정민 권 준	엄보영 여지은 연현숙 오은희	열매맺는교회	노명민 노민지 류종열 박재승	조서윤 조은경 조하은 최선경
권희조 금동옥 금필규 김가영	오찬양 오채엽 용아름 우현아	이예람	박주영 박혜숙 성용제 소경숙	최소린 최양서 탁현정 황영숙
김다예 김도훈 김두현 김명화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수정	2만원	손성원 송만호 송인성 신장섭	좋은교회
김명희 김무엘 김민정 김민음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윤지준	김득희 김동원 김미나 김미향	신화영 안선례 왕용분 유미영	4만원 박주는 배정환 신은진 윤서희
김병렬 김선근 김선태 김성애	윤현중 윤혜자 이광석 이권호	김민지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유의숙 윤광길 윤영원 이기주	5만원 강경옥 김기숙 김동완 김준오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김연주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이상복 이선영 이영림 이영애	김 진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김소녀 김순덕 김순하 김승훈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이우진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박광필 박인수 서명주 송복순
김승희 김예진 김요셉 김유미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김정복 김종재 김지원 김현진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진리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광삼
김유현 김은경 김은석 김은천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노명민 노민지 류종열 박재승	이흥희 이현우 임수경 임수정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이지은
김은혜 김은혜 김은환 김일준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정숙	박주영 박혜숙 성용제 소경숙	임은희 임주영 장은경 장재경	천유림 최경환 최송희
김재현 김재현 김정은 김정희	이정익 이정훈 이주희 이진경	손성원 송만호 송인성 신장섭	장재원 전수경 전영희 정복자	가학교회 뱀열성서동우회
김지선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혜렬	신화영 안선례 왕용분 유미영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6만원 정동주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이현섭 이현지 이혜진 이화연	유의숙 윤광길 윤영원 이기주	조은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10만원 김동관 김선옥 김장교 김종숙
김혜영 김화식 나선영 남범수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이상복 이선영 이영림 이영애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허춘선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남성희 노하나 노 만 류요한	임은성 임은진 임찬용 장윤국	이우진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홍진옥 홍혜주 황인숙	11만원 유선미
류하나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장익봉 장익선 장희남 전명수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진리	등대교회	12만원 성낙표
문기철 문성령 문정혜 문홍철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이흥희 이현우 임수경 임수정	3만원	13만원 유아량
민정은 박경수 박경옥 박수진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금숙	임은희 임주영 장은경 장재경	고은영 공복순 공지는 구예은	15만원 박빛나
박순임 박아론 박윤복 박재숙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소윤	장재원 전수경 전영희 정복자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윤정	100만원 이례장학
박재신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정영고 정윤미 정은희 정인철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김재임 김지애 민승철 박기혁	
박창대 박창민 박항식 박형택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은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박혜인 반혜인 반혜성 방지연	정희영 조민을 조소연 조수빈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허춘선		
배은희 배창경 배효순 배명희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홍진옥 홍혜주 황인숙		
백연옥 백연주 백해순 백향목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등대교회		
변지윤 서성식 서유미 서지혜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3만원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고은영 공복순 공지는 구예은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윤정		

재학생 및 가족

- 1만원 권명희 기병문 김선경 김양순
- 김은주 김혜미 선동하 선유정
- 심희정 양은성 양주향 이광삼
- 이동기 이상란 이혜정 임동현
- 임동화 장연정 전개화 지중배
- 2만원 김선옥 김애선 김창환 김형태

기부자 명단

박명규 송동식 송세희 신한우 연성희 이마리 이미영 이은수 이은영 이진아 장영순 전옥순 조율이 천광호 함은애 3만원 배정숙 송의택 안태유 4만원 정해숙 5만원 김명자 김선주 박선희 안종현 이재현 이지연 정미영 30만원 박지홍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임재택 호한나 2만원 진양희 홍옥주 3만원 권효진 김미화 문유나 박천순 변송이 안미희 장나혜 장윤정 4만원 박미선 5만원 김선화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이지연 차도영 10만원 권정아 장수진 조지선 15만원 김화영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차 건 35만원 오동준	허에스더 10만8천원 김현석 1728만원 성서대학교회 성서선교회 1만원 윤무표 2만원 금촌성서교회 3만원 태광성서교회/푸른동산교회 10만원 다빛교회 /삼일성서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홍성호 어린이양교회 1만원 김정희 2만원 김 웅 박우람 3만원 임윤창/어린이양교회 7만원 이정선 이레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최영란 2만원 신영옥 강영애.신한성 이준구.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5만원 김옥자 김중구 이경식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원로·은퇴장 로회 10만원 김용철 무 명 현희철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2만원 황인도.김순자 15만원 이혜선 48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진경숙 진효숙 홍성일 2만원 진은숙 일 반 1만원 구필레 권숙영 권창석 김대석 김명호 김미라 김법설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김희권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민석 송수용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해연 유하실 윤수현 윤준영 이관현	이민우 이성영 이성태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윤진 이현수 임숙자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윤송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한춘경 황영수 위셀러듀 2만원 강명옥 김옥석 김동석 김성래 김윤숙 서병준 서성원 이사람 이일신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행복한교회 3만원 김종환 장문석 3만5천원 박은영 5만원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10만원 서미혜 정동환 평화의교회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30만원 박순정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늘푸른교회 /맘키즈푸드/목양교회 /무진인터내셔널 /이음기업 /주님순교회/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외식산업 /동신자원/바르고복된교회 /열방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한길교회(김오권) 5만원 다드림교회 /미사목민교회 /본도시락 중계점 /사랑샘교회 /상일교회/예일에도컬 /행전교회 10만원 (주)바다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구리중앙교회/대광교회 /도봉성산교회/두암산업(주) /상록교회/서부중앙교회 /성북중앙교회/소망교회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평안교회(송파) 20만원 (주)소원기건 30만원 한민제일교회 100만원 교수부 320만원 경성교회 소계(20230621~20230720) 56,412,039 누계(20220301~20230720) 285,197,568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곽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유진 김중현 김지성 김지환 김지효 김준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모서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심평강 양승원 유성준 윤명성 이문자 임수아 장경숙 전광선 전귀선 정현아 지수진 진달래 최미영 하윤민 오시다고조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봉재 김세원 김장호 문지예 민경은 박은주 박태웅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전영호 정순애 정은상 조철남 최난영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박성범 박인혁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유다운 윤혜진 이소연 정지용 추연진 4만원 김덕원 5만원 구광면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신지수 양단아 유미나 이상일 장정순 6만원 권순범 7만원 임환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객규상 김덕현 김도경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옥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성아 이소정 이슬기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옥열 최은희 현우석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2만원 배민정 12만5천원 강일석 13만원 김종완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이한영 20만원 김승옥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35만원 최선희 186만원 강우정 강 진 251만원 강혜정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김현진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균 정혜란 한금순 서문교회 1만원 강신애 박경자 윤인호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성서대학교회 9천원 김신덕 김혜진 이 천 임성일 정갑숙 황성모 1만원 강경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자수 이진호 1만8천원 고경숙 고미숙 권정화 김다혜 김덕현 김동석 김문정 김배열 김사천 김상은 김성은A 김성진B 김성철 김애숙 김유미 김주혜 김지윤 김진철 김현미 김희자 김희현 박상희A 박영숙 박영신 박은선 박이숙 박인숙 박진석 방미경 서 훈 서영우 서유희 석경순 송형기 안영숙 오경모 오종철 윤정자 윤재필 이길우 이대우 이봉호 이소정 이영진 이영희 이정숙 이정자 이종옥 이주현 장근문 장진희 장홍림 정나영 정선희 조영희 조정선 조현진 최영태 최용석 최인숙 하은희 한성실 황시은 2만원 변경선 2만7천원 김영현 유상호 3만6천원 강규성 강유진 김민자 김인자 김춘환 김향순 박 선 박은유 박주형 박태수 안봉숙 유정선 유중엽 이경신 황서린 4만5천원 김동선 유형창 정예진 5만4천원 김문웅 민윤옥 최선희 6만3천원 정도유 7만2천원 이윤봉 9만원 강성훈 김용희 김웅기 김원태 김일선 박세건 박은오 이은실 이정임 최강희 최대만 최순남 최정관 최지용 하가람 한진호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최영란 2만원 신영옥 강영애.신한성 이준구.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5만원 김옥자 김중구 이경식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원로·은퇴장 로회 10만원 김용철 무 명 현희철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2만원 황인도.김순자 15만원 이혜선 48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진경숙 진효숙 홍성일 2만원 진은숙 일 반 1만원 구필레 권숙영 권창석 김대석 김명호 김미라 김법설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김희권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민석 송수용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해연 유하실 윤수현 윤준영 이관현	소계(20230621~20230720) 56,412,039 누계(20220301~20230720) 285,197,568
부설기관			

한국성서대학교 7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4,000,000원)

하이플랜 주식회사(동문) 3,000,000원

/

두암산업(일반) 500,000원

이정원(재학생) 400,000원

/

배민정(교직원) 100,000

약정 후원자 (합계 18구좌 연간 납입예정액 2,160,000원)

5구좌 평화의교회 (일반)

/

5구좌 서명주(동문)

/

5구좌 김기주(동문)

2구좌 박우람(교직원)

/

1구좌 박명우(교직원)

일시납 누계 (2023. 3.1~7.22) 42,710,000원 / 약정자 누계 (2023. 3.1~7.22) 138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16,560,000원)



23학년도 후기 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K선교 시대를 열어갈 초교파 복음주의 전문 인력 양성

교회와 일터 현장을 위한 전문평신도 · 예비목회자 모집

직장인을 위한 신대원, 여성목사 안수 가능

모집학과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M.Div)

학업, 일 병행  주3일 수업(야간 2일 대면, 1일 비대면)

오랜역사  북서울 유일 초교파 복음주의 신대원

장학금  매학기 다양한 장학 혜택

접수기간  ~ **8.16(수) 상시모집**

입학문의  02-950-5456, 5464

편리한교통  7호선 중계역(한국성서대역) 1번출구 도보 3분